



1868~1943

날으는 홍범도장군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110-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신교동) 발행인: 이종찬 편집인: 홍성덕
TEL: 02)734-8851~2 FAX: 02)722-0251 http://www.hongbumdo.org

제6호

가을

2015. 9. 10



홍범도장군 묘지는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동아일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장군묘지 수풀만 무성해”

동아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에 차길호 기자의 현지 보도로,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묘지엔 수풀만”이라는 제하에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는 묘지 관리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대한독립군을 지휘하여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두산 호랑이를 기리는 추모지라고 하기에는 초라해 보였다. 강제이주를 당한 뒤 극장 수위로 일하다 1943년 세상을 떠난 홍범도 장군의 말년을 떠올리게 했다.”는 비탄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기사에는 묘지를 관리하던 홍범도재단이 2년 전에 문을 닫자 공원 내에 묘지가 있는 계봉우 선생의 넷째 아들인 계봉림씨가 공원관리를 떠맡았다고 했다. 계씨는 “차세대 후손들이 무엇에 기대어 고려인의 정체성을 이어갈지 모르겠다. 꾸준한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고 보도하였다.

크질오르다 장군의 묘역은 1943년 10월 25일 서거 당시 독·소(獨蘇)전쟁 중이라 거소 근처에 임시 묘지를 조성했다가 종전 이후 중앙공원 묘지로 이장하고, 1951년 8주기 추모식을 맞아 고려인 유지와 전우들이 반신 흉상과 철장을 세웠다. 1996년에는 우리 정부와 기업인이 제공한 기금으로 흉상 주변에 강제이주, 광복 50주년, 강제이주 60주년의 기념비 3개를 건립하였다.

한편,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국가보훈처 처장에게 8월 17일자로 동아일보 기사를 첨부하여 정부의 책임 하에 묘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건의하였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2013년 10월 카자흐스탄 현장에서 70주기 추모식과 학술회의, 묘지참배행사를 마치고 보훈처에 결과보고를 통하여 묘지관리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참배를 앞두고 묘지관리가 되지 않아 고려인 단체에 부탁하여 고려인 청년들이 이틀 동안 벌초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여 참배행사를 원만히 하도록 뒷받침하였다.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홍범도 장군 묘지관리 실태를 질의했는데 보훈처에서는 “현지 홍범도편드의 김네프만 회장과 계학림 선생이 관리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바 있다.

앞으로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적으로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백두산 호랑이’ 홍범도 장군 묘지엔 수풀만...

홍범도재단 재정문제로 문닫아
계봉우 선생 아들이 힘겹게 관리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의 옛 중앙공동묘지, '동일문'이라는 소박한 한글 문패만이 이곳이 홍범도 장군의 기념공원을 알리고 있다. 공원을 관리하는 고려인 2세 계학림 씨(88)가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어준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

현지 고려인의 기부로 설립된 홍범도재단은 1996년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홍범도 장군의 묘지를 이장한 뒤 공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기



1일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있는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내 계봉우 선생 묘비 앞에 선 아들 계학림 씨. 크질오르다=차길호 기자 xio@donga.com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자

이 중 찬(기념사업회 이사장,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지난 9월 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의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큰 포석을 두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번 중국 방문길에 박 대통령께서 상하이의 임시정부기념관 재개관식에 참석하여 우리 독립운동을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1919년 4월에 수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의 뿌리이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항일투쟁의 역사를 공유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세계 각지에 있는 임정기념관 및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중국내 임정장정(長征)을 했던 여러 곳에 기념관이 유지되어 있고, 미국, 프랑스 등지에도 기념되는 시설에 최소한 표석이라도 남기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는 임시정부기념관이 없다. 모두 개인을 위한 기념관일 뿐, 막상 임시정부를 총체적으로 기념하는 공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광복70주년을 맞는 금년 초, 뜻을 같이한 분들과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여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자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사상, 이념, 지역을 초월하여 3·1독립운동정신을 토대로 임금의 나라 “대한제국”을 끝내고 백성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혁명적 출범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정의 실시를 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주춧돌을 놓았다. 이는 1948년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극명하게 실현되었다.

그러므로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주공화정의 시대정신을 역사적 연원으로부터 인식하고, 국민교육의 성역으로 승화시켜야 했다. 요즘 일부에서 우리가 광복이후 외래민주주의를 수입한 후진국민양 스스로 비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이다.

정부수립 후 친일적인 반민족 세력이 냉전 수구논리를 앞세워 마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반대한 것

처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구성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이범석 국무총리 등이 모두 임시정부 출신들이다. 제헌국회 선거에 불참했던 임정인사들이 제2대 총선거에는 참여하였다. 조소앙, 지청천, 김원봉, 윤기섭 등이 대거 참여하여 당선되었으나 불행히도 6·25전쟁 중에 납북되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향이 있다.

그 동안 항일투쟁의 험악한 공로를 세운 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출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관을 세워 국민교육에 큰 역할을 해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정의 정신이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과제는 지역적인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은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귀중한 가치가 내포된 대역사(大役事)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몇 가지 스스로 다짐한 내용이 있다.

첫째, 북한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심히 왜곡하여 마치 김일성이 혼자서 무장투쟁을 다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역사로 인하여 좌파 역사교과서가 판을 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임정기념관을 지어서 이 기회에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립하자는 것이다.

둘째, 임정기념관은 모든 사상, 이념,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승만, 김구, 안창호, 여운형, 김원봉... 등등 서로 갈등이 있는 모든 분들의 업적과 정신을 임정이라는 공간에 넣어서 용해하자는 것이다. 그분들은 모두 초기 임정 수립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셋째,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2019년은 100주년 되는 해가 된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금년부터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여 현 정부 임기 중에 착공하여 민족화합과 역사바로잡기에 큰 업적을 세우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광복 70주년과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홍범도장군 순국 72주기 추모식 및 학술회의

10월 23일(금),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홍 장군의 순국 72주기를 맞아 오는 10월 23일(금) 오후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본래 10월 25일이지만 이날이 일요일이라 앞당겨서 거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모식에는 중국 연변인물연구회 집행위원장인 김진검 전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과 박경식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상임부회장을 초청하였다.

이어서 개최될 학술회의에서는 “봉오동, 청산리전투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를 주제로 하여 중국과 러시아 및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고 토론을 갖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만 조명한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주변국의 입장을 종합하여 우리의 독립

운동사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연구함으로써 독립운동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시도에서 계획한 것이다.

제1주제는 러시아의 시각에서 윤상원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은 심현용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제2주제는 일본의 시각에서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황선익 고려대학교 한국사 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을 담당하였다.

제3주제는 중국의 시각에서 중국 연변대학교 최후택 교수가 발표하고, 한상도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한편 학술회의 전반적인 진행과 종합토론은 한시준 단국대학교 교수가 수고하기로 하였다.

곽승지 교수, 재외동포포럼에서 조선족 문제 발표



연변과학기술대학 곽승지 교수는 지난 7월 22일 한국방송통신대 역사관에서 열린 재외 동포포럼(이사장 조남철) 제65차 회의에서 조선족 동포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곽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통일의 주체를 남북한을 넘어 재외동포와 주변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포럼은 ‘중국 동북지역과 조선족 동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하여 곽 교수는 “그동안의 통일 담론은 한국과 북한의 대립구도의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기존의 접근방식은 탈냉전, 세계화 및 다문화사회로 바뀐 현재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6월 봉오동 전승기념행사에서 곽 교수와 인연을 맺은 연고로 기념사업회 홍성덕 상임이사, 문준진 사무총장 등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김환길 독립운동사연구회장, 그리고 홍이표 애지모 회장과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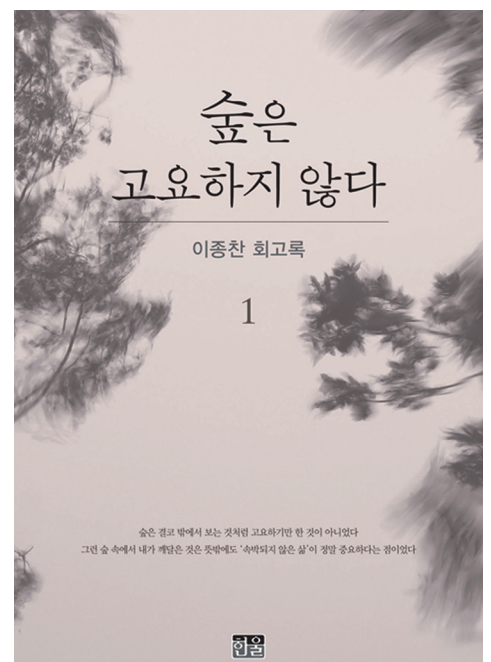


이종찬 이사장 회고록 출판기념회 개최

우리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이 오는 9월 17일(목) 오후 3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 회의장에서 팔순을 기념한 회고록 “숲은 고요하지 않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한울출판사(대표 김종수)에서 발행하는 회고록은 2권으로 편철되며 모두 1,100여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자서전이라고 한다.

이종찬 이사장이 해방이후 자신이 참여했던 모든 분야에서의 경험과 소회를 기록하여 후학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고, 정치인들에게는 지향해야 될 가치를 제시할 것이며, 학계에는 현대사 연구에 소중한 사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념사업회, 연세대와 중국 연변대 공동 학술회의 후원

“한반도와 만주 관계”를 주제로 “연변지구 항일 근거지 연구” 발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 중국 연길 연변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와 연변대학교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를 후원하였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김도형 교수와 연변대학교 사학과 이용식 교수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및 미국 등에서 연구되고 있는 한국사 연구동향을 정리하고, “한반도와 만주의 관계”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한 나라 중심의 연구관점에서 벗어나 중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미국의 연구자까지 참석하여 각종 연구 동향을 종합 정리하고, 만주지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 특별주제 논문은 연변대 현진국(玄振國)씨가 「연변지구 항일근거지 연구」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현진국은 동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근거지의 형성은 조선족 반일기지의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조선에 통감정치를 실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만주지역에 대한 침략 야심을 드러내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결과 1907년

일본이 용정에 “조선통감부 임시파출소”를 세우고, 1909년 중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간도협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동북조선족은 일제와 중국정부의 이중압박을 받게 되었다.

1910년 강제합병 이후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피하여 중국동북지구로 이주하였고, 그중 흥범도 장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반일지사들은 학교와 민족주의 반일단체를 설립하고, 각종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연변 각 반일무장단체는 연길현 의라구, 왕청현 소왕청, 안도현 처창즈 등지를 근거지로 일제에 대항하여 무장투쟁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흥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승리는 반일투쟁을 최고조에 이르게 하였고, 나아가 이 전투를 통해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본격적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일제의 잔혹한 토벌로 민족주의 반일운동은 점차 저조기에 진입했지만 이들의 반일기지 건설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만주지역 항일 무장투쟁 근거지 건설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신호승 국장, 청산리에서의 흥범도 역할 발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기념사업회 신호승 국장은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로 알려진 어랑촌 전투를 중심으로 흥범도 부대의 역할과 의미를 군사적 측면에서 고증하였다. 어랑촌 전투는 1920년 10월 만주 지린성 화룡현 일대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간의 전투가 벌어진 청산리 전역 중에 가장 큰 전투였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에서는 부대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없이 독립군의 전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결과적으로 일본측 연구자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신 국장은 이번 발표에서 일본측 자료와 한국 독립군 자료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어랑촌 전투에서 북로군정서와 흥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증하였다. 특히 이범석을 비롯한 북로군정서 기록에서 대한독립군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와 대한독립군이 북로군정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싸웠던 구체적인 장소까지 추정하고, 일본측 자료를 토대로 함으로써 일본측 연구자들의 비판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과 위주로 평가되었던 청산리전투의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었

다. 북로군정서가 주도한 어랑촌 전투에서 일본군의 포병공격에도 불구하고 김좌진 부대가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성공적으로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흥범도 부대가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위협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게 되었다.

신 국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히 한국사 범주의 무장독립투쟁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주의의 대(對)아시아 침략전쟁이라는 세계사적 범주에서 아시아의 다양한 민족들이 이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뜻깊은 국제학술회의였다고 평가하였다.



중국중앙방송(CCTV), 조선족 다큐 “아리랑의 꿈” 방영

홍범도장군의 봉오동, 청산리전투 상세히 소개



중국의 중앙텔레비전방송(CCTV)에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회에 걸쳐 100분 동안, “아리랑의 꿈(阿里郎之夢)”이라는 주제로 조선족 동포에 관련된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큐멘터리로 방송하였다. 여기에는 이주 당시의 꿈과 척박한 산야에서 모진 고난을 감내하며 개척해 가는 정착과정, 일제의 탄압과 박해에 따른 한(恨)과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혁명 이후 생활의 안정을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방송자료를 제공한 이광평(李光平) 연변3·13기념사업회 회장에 따르면, 중앙TV에서 종합적으로 조선족관련 다큐를 방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방송은 최근 중국의 호의적인 대한 정책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첫날 방송된 제1편에서는 조선민족 이민사를 중심으로, 1877년 도문강(두만강)을 건너 용정(龍井)으로 이주하여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하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로 개간한 농토를 잃고 고난을 당했던 사실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야욕으로 힘겨웠던 개척 상황을 회상하며, 삼합(三合) 망경각(望景閣)에서 함경북도 회령 시가지를 바라보는 망향의 모습을 방송하였다.

제2편에서는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이후 다시 유랑생활을 했던 사실과 일제의 강제노동과 착취 실태를 보도하고, 제3편에서는 용정 3·13 반일집회,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4편에서는 수도작(水蹈作)의 성공으

로 인한 풍요한 삶과 민속문화를 계승하는 평화로운 농촌마을을 소개하고, 제5편에서는 1942년 조선의용군의 역할과 진광하 열사의 항일투쟁과 한단 혁명열사 묘역을 설명하고, 조남기 장군이 출연하여 조선족의 항일투쟁과 현재의 삶과 생활을 비쳐주었다. 5편의 마지막 부분은 중국사회를 선도하는 성공한 조선족의 삶으로, 중국과학원 강경산 원사의 과학적인 성공과 김홍광 원사의 역사연구 사례를 열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조선 동포들의 모습과 밝은 장래를 소개하였다.

특히 제3편의 항일무장투쟁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가장 비중있게 언급하였다.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부독부, 신민단과 연합하여 북로독군부가 결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전투 전개과정은 삼둔자 전투에서 시작하여 봉오동 상촌의 삼도구 전투에서 일본 월강추격대 150여 명을 살상했다는 전과 등을 열거하였다.

또한 봉오동전투는 한국의 반일무장투쟁에서 최초로 일본군을 격퇴한 전투이며, 중국 영토 내에서 일본을 격퇴한 첫 번째 전투라는 의미에서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하였다.

한편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는 1920년 10월 훈춘사건과 길림성 화룡시 묘령촌 독립군 연석회의에서, 홍범도의 주전론과 김좌진의 전투 회피론이 대립되었으나 상호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김좌진은 청산리 방향으로, 홍범도는 완루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어랑촌 전투에서 위기의 김좌진, 홍범도 부대가 구출 …

북로군정서 부대는 청산리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일본토벌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운평에서 매복하다가 일본토벌군이 접근하자 독립군부대 6백명이 기관총, 소총 등으로 일본군을 습격하여 90여 명을 전멸시켰다. 독립군부대는 안도로 향하다가 갑산촌을 거쳐 다음날 새벽 천수촌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있던 일본기병헌병을 전멸시켰다.

이 부대는 밤새 계속해 강행군하다가 천수동에서 또 싸우고, 청산리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어랑촌 압계구(鴨鷄溝) 874고지에 도달하여 김좌진 부대는 위기일발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한편 홍범도 부대는 완루구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여 3~400여 명의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이때 홍범도는 위기에 빠진 김좌진 부대를 보고 개입하여 874고지에서 저녁 7시까지 싸워 위기에 빠진 김좌진 부대를 구출하였다.

중국 중앙방송에서는 항일부대원은 3,600명이었으나, 일본토벌대 15,000명을 분쇄하고 승리를 거두어 국내외 언론에서 독립군의 성공을 크게 보도했다고 소개하고, 열세의 조선독립군이 막강한 일본군을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조선족 항일무장부대원들의 투철한 민족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황 원 섭(기념사업회 이사)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는 2005년 2월 25일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 창립되어,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흥범도 장군은 항일무장투쟁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전설적인

영웅이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반공주의 체제에서 장군의 업적이 퇴색되었고, 그동안 우리 무장투쟁사는 어느 한쪽의 공적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이종찬 이사장을 비롯한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오도된 독립운동사를 제 자리로 돌리려고 결의를 다지고, 지난 10년 동안 모든 임원들이 열정을 다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흥범도 장군은 비록 하층민으로 성장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한 굳은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이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항일독립투쟁을 벌여오셨다.

장군은 포수단을 조직하여 항일의병투쟁의 선봉장이었고 3·1운동 직후 최초의 국내진입작전으로 두만강을 건너 해산진 일본군수비대를 섬멸하고 만포진을 점령하는 전과도 세웠다. 1920년에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통하여 일제 정규군과 싸워 독립전쟁사상 청사에 빛나는 최대의 대첩을 거두었다.

장군의 항일독립운동은 민족의 혼과 역사에서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우리 민족의 고귀한 성전인 환단고기(桓檀古記)를 편찬하여 홍익인간의 이념과 민본주의를 가르친 투철한 민족주의자였다. 장군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버리고, 부인과 자식마저도 일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항일투쟁을 계속한 분이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초지일관하여 이와 같은 흥범도장군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현창하려고 노력해 왔다. 매년 봉오동전투 전승기념행사와 추모식을 개최하고, 학계의 협조를 얻어 무장투쟁에 관한 학

술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2013년 10월, 70주년 추모행사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크질오르다에 있는 장군의 묘소를 참배하였다. 또한 장군께서 생전에 상연했던 흥범도 연극을 재연하여 고려인 동포와 우리 회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난 6월에는 봉오동 전승 95주년을 맞아, 중국 도문시 수남촌 전투현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전투현장을 답사하였다. 현지 조선족 동포들의 초청으로 마을잔치를 벌였고, “우등불 행사”를 통하여 동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한 민족으로서의 뜨거운 동포애로 가슴이 저미는 감동을 느꼈다.

돌아켜보면 지난 10년은 그 동안 오해를 받았던 흥범도 장군의 사상과 업적을 밝히고, 잘못된 사실을 광정(匡正)하고 신원(伸冤)운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일본의 자료와 군사 전술적 접근방법으로 청산리전투에서의 장군의 역할을 규명했고, 투철한 민족주의자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념적 입장에서 오도되었던 장군의 위상을 민족사적 입장에서 다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기념사업회의 사명은 흥범도 장군의 역할과 위상을 세계사적 입장에서 연구하고 조명하여 실제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도록 동기를 주입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이다.

흥범도 장군은 20세기 초반기에 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사에서 혁혁한 최고의 공훈을 세운 분이다. 청산리 전투는 전 세계 해방투쟁사상 최대의 전과였으며, 장군의 탁월한 게릴라 전술은 체계바라나 모택동 보다 한 세대가 앞선 유격전의 전형이었다. 또한 의병투쟁에서부터 러시아와 연대했던 연계전술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는 앞으로 장군의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장군의 사상과 업적을 대중화시키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념사업회의 원만한 역할과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원하여 주신 모든 회원들과 자축하는 축배를 나누고 싶다.

김삼웅 저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



“봉오동 홍범도 장군, 청산리 김좌진 장군”이라고 우리가 고고 국사교과서에서 배운 등식이 최근에는 “봉오동 홍범도 장군, 청산리 홍범도, 김좌진 장군”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는 10년 전부터 홍범도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더욱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의 “빨치산 대장 홍범도 평전”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누구인가?

그는 1868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때는 조선에 서구열강들의 세력이 밀려올 때였다. 나라에서는 그 일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고 침략의 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어려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항상 나라에 큰 환란이 일어나면 곤욕을 당하는 자들은 일반 서민들이다. 장군도 그러한 가운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런 상황에서 총을 잡게 되면서 침략자에 대한 매서운 분노로 변해 간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그의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

그의 삶은 5단계로 나뉘 볼 수 있을 듯하다.

- * 어린 시절 및 청장년기: 출생부터 1907년 본격적인 의병 활동의 개시까지
- * 국내에서의 의병부대 조직과 항일 무장투쟁 시기: 1907년부터 이듬해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 * 만주, 연해주에서 재기 도모 시기: 1919년 간도로 진입하는 시기까지
- * 간도에서의 독립 전쟁 전개 시기: 역사상 항일 독립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대승한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을 중심으로 1921년 연해주로 건너가기 전까지
- * 연해주, 중앙아시아에서의 만년 시기: 1921부터 사망하는 시기인 1943까지

그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그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그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전쟁인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과 함께 치른 청산리 전투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홍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인지할 수가 있다.

그는 민족의 적은 누구든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쳐야 함을 누누이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힘을 길러갈 것을 주창하고, 자

신이 그렇게 해나간 것이다.

저자는 장군을 이순신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것,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는 것, 뛰어난 전쟁 능력을 갖춘 것 등을 그 요소로 생각한다. 장군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행해진 비유이리라. 그만큼 글 속에서는 장군을 높이 평가한다.

올해는 홍범도 장군 서거 72주년이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광복 7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다. 왜 그의 유해는 조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한 저자의 일관된 관심은 여기에 있다.

그 이유를 그는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국내 보수적 역사학계의 배타성이다. 보수적 학자들이 발행해온 ‘한국사시민강좌’는 2010년에 발행한 47호 특집에서 ‘대표적 독립운동가 12인’을 선정할 때 홍범도를 제외했다는 것. 둘째, 홍범도는 평양 출신이기에 남한에 홍범도를 기릴만한 후손이 없고 나아가 국내 독립운동연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셋째, 홍범도는 머슴 출신이어서 학문적으로 연구할 대상이 못 된다고 여기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 넷째,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이라는 호칭이 주는 뉘앙스, 즉 ‘빨치산’이라는 호칭 자체가 터부시되어온 국내 여론에 밀려 그의 공적이 상당 부분 묻히고 말았다는 것. 다섯째, 그가 한때 레닌과 만나서 권총을 선물로 받고 볼셰비키에 입당한 일로 인해 좌파 독립운동가로 몰렸다는 점이 그것.

게다가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한인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건너가면서 우리 역사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하지만 그는 1937년부터 1943년 10월 25일 75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엄연히 생존해 있었다.

조선극장 배우인 태장춘이 말년의 홍범도에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돌아보는 ‘일지’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희곡 ‘홍범도’를 무대에 올렸을 때, 그는 “너무 추켜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평소 겸손한 품성 그대로였다. 그런 홍범도였으니 그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독립운동사는 영원히 마침표를 찍지 못할 것이다.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은 추천의 글에서 “먼저 홍범도 장군은 세도를 잡은 양반 출신이 아니며 하층계급 출신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민족의 생존과 독립을 위해 봉기하였고, 둘째 홍범도 장군은 항상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춘 겸손한 지도자였으며 셋째, 홍범도 장군은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청산리, 봉오동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리: 홍성덕 상임이사)

…임원동정…

○이우재 고문



윤봉길 월진회 이사장인 이 고문은 지난 6월 개최예정이었던 제42회 윤봉길문화축제가 메르스 사태로 연기됨에 따라, 이를 오는 11월 6~7일에 다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에서 개최될 축제에서는 동북아평화포럼, 학생체험활동, 윤봉길로(덕산-삼교천)걷기대회 등을 개최한다.

○홍헌일 감사



고양시 밥할머니보존위원회(회장 김형만)에서는 8월 28일 밥할머니 민속 발굴자인 홍 감사를 초청하여 “밥할머니는 실존인물인가, 설화인가?”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김희일 이사



홍산문화 중국도자박물관장인 김 이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중국 덕화요(德華窯) 백자 특별전시회를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서울홍산문화중국도자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손양호 이사



불교중앙박물관회 명예회장인 손 이사는 9월 8일 박물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5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 불교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시회 불전장엄(佛殿莊嚴)의 성과를 분석하고, 후반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협의하였다.

○이영철 이사



4·19포럼 회장인 이 이사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동안 4·19포럼 회원들과 같이 홍콩, 마카오 일대를 답사하고, 한국과 중국 문화재의 비교연구를 위한 각종자료를 수집하였다.

○진익산 이사



진테크 대표인 진 이사는 박근혜 정부 3.0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업혁신운동 혁신과제 이행 우수기업체로 선정된 50개사에 포함되어, 9월 1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인 우수기업인상을 수상한다.

○홍이표 이사



애지모 회장인 홍 이사는 8월 29일 애지모 환경지킴이 기자단과 환경지도자들과 함께 분당탄천변 정화활동과 한국 잡월드 체험학습을 벌였다. 애지모 가족들을 비롯한 환경운동 참여자 일동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홍중표 이사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인 홍 이사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발전을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며, 여기에서는 중소수산물 유통인들의 이익보호와 산지 출하업자들의 권익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홍 이사는 중국 수산물 수출입과 합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길자 이사



용산문화원 및 청하아카데미 회원인 이 이사는 ‘죽헌문학’ 창간호를 준비 중이며, 9월 9일부터 8일 동안 발틱 3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역사문화 탐방 여행을 떠난다.

○김환길 자문위원



서울중등독립운동사교육연구회장이며, 가락고등학교 교장인 김 위원은 8월 22일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4주과정으로 진행되는 제15기 우당청소년역사교실 수료식을 개최하며, 9월 19일(토)에는 연구위원들과 함께 박물관 수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과 유관순기념관을 답사한다.

○정동화 자문위원



정 위원은 6월 22일 유성복지재단 부회장 겸 사무총장 취임하였다. 사무실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20 동양빌딩 B동 4층이며, 유성재단은 전국적인 후원회 조직을 가진 복지사업 재단이다.

○김성훈 국장



대우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훈 국장은 지난 4월부터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기업금융센터에서 기업금융컨설팅과 장학재단 자금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